

전라북도 보육 현황 (어린이집)

| 박호용(전북교육정책연구소 전문관)

2023.5월 전라북도교육청은 '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'에 선정되어,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·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이번 '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'에서는 '전라북도 보육 현황 (어린이집)'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

■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유형

- 국공립 어린이집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-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- 법인·단체 등 어린이집 :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- 직장 어린이집 :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- 가정 어린이집 :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- 협동 어린이집 :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
- 민간 어린이집 : 위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

■ 측정산식

- 어린이집 1개소당 아동 수 = 아동 수(현원) / 어린이집 수
- 이용률 = 아동 수(현원) / 아동 수(정원)
-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= 아동 수(현원) / 보육교사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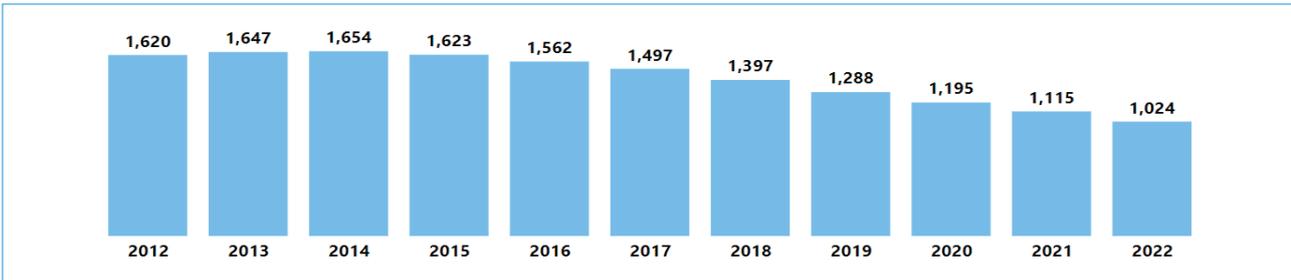
I

연도별 보육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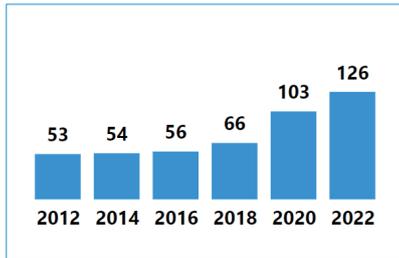
(매년 12.31. 기준, 단위: 명, % / 출처: 보육통계)

1 어린이집 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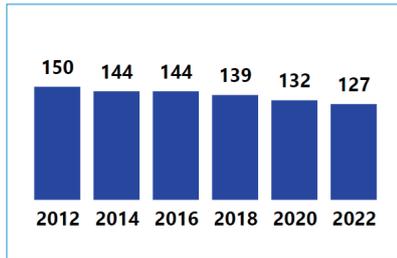
전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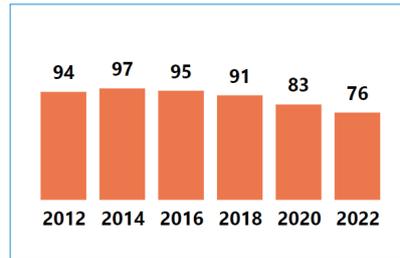
국·공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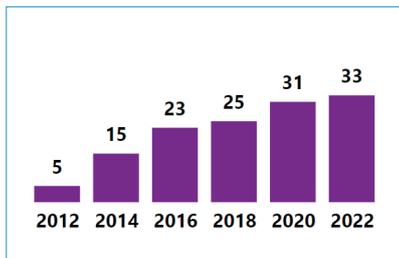
사회복지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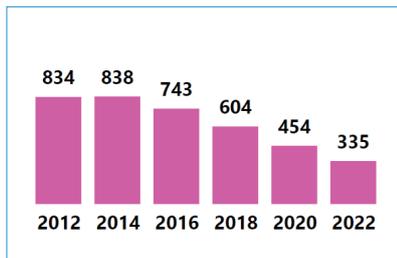
법인·단체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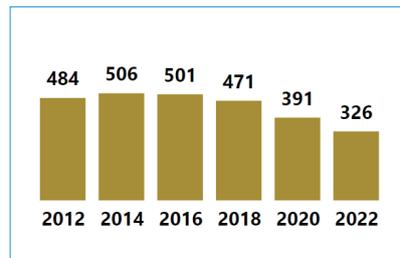
직장



가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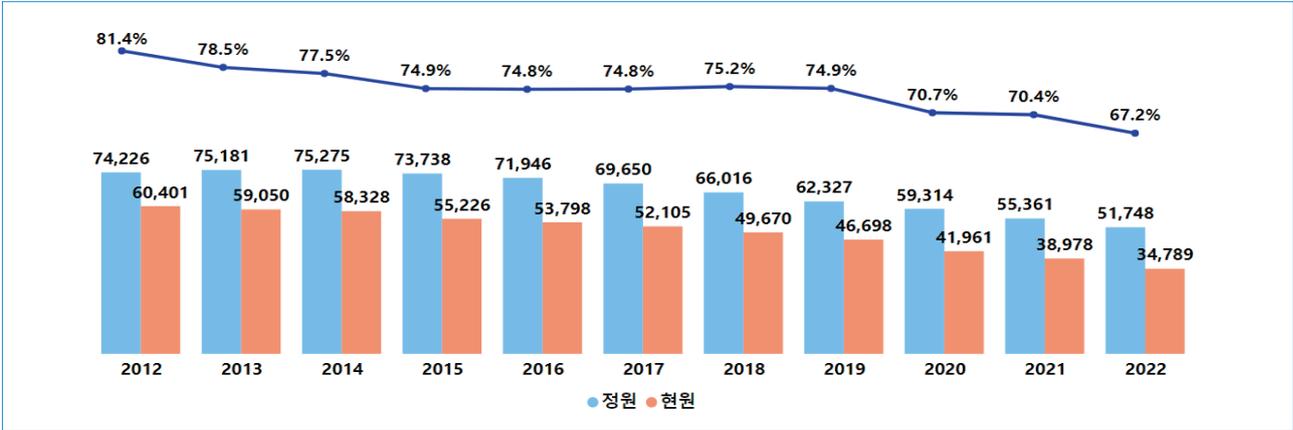
민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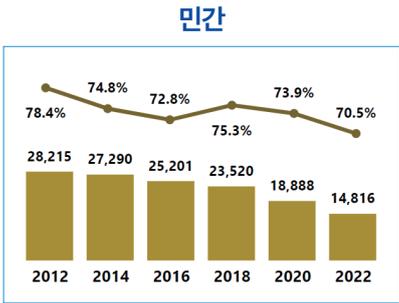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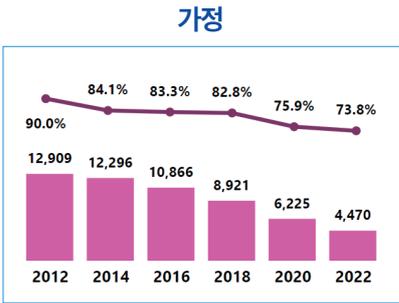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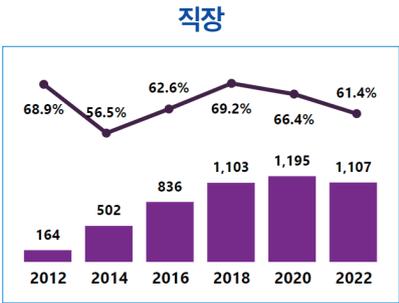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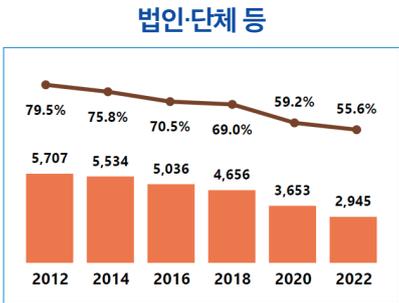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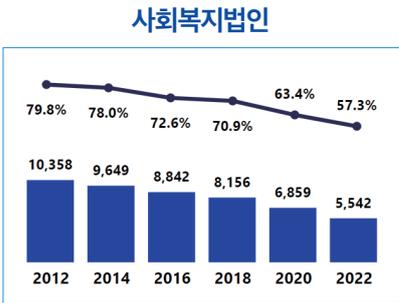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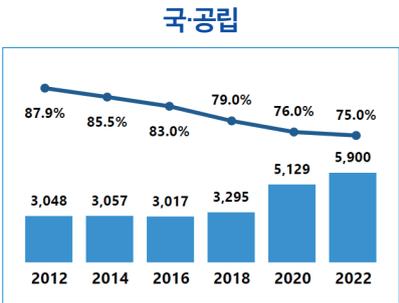
※ 협동 어린이집은 2017년부터 1개소임.

- 전라북도의 전체 어린이집은 2012년 1,620개소에서 2022년 1,024개소로 596개소(36.8%) 감소하였고,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음.
- 2012년 대비 2022년 어린이집이 증가한 곳은 국·공립과 직장 어린이집뿐임. 2012년 대비 2022년 국·공립 어린이집은 73개소(137.7%) 증가하였으며, 직장 어린이집은 28개소(560.0%) 증가하였음.
- 2012년 대비 2022년 어린이집이 감소한 곳은 사회복지법인, 법인·단체 등, 가정, 민간 어린이집임. 2012년 대비 2022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23개소(15.3%), 법인·단체 등 어린이집은 18개소(19.1%), 가정 어린이집은 499개소(59.8%), 민간 어린이집은 158개소(32.6%) 감소하였음.

2 보육아동 수(정원, 현원) · 이용률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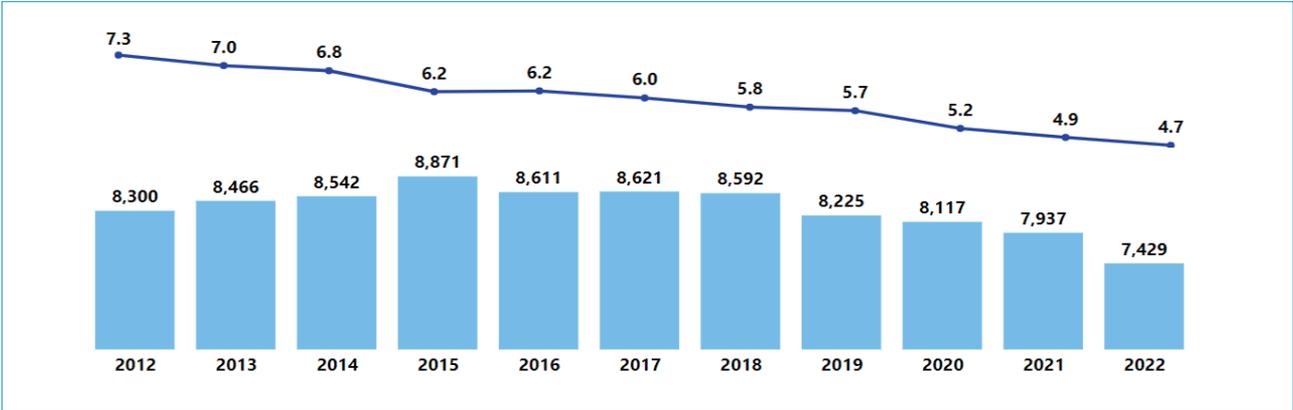
- 전라북도의 보육아동 수(현원)은 2012년 60,401명에서 2022년 34,789명으로 25,612명(42.4%) 감소하였고,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음.
- 보육아동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을 의미하는 이용률은 2012년 81.4%에서 2022년 67.2%로 감소하였음.



※ 협동 어린이집의 보육아동(현원)은 2017년 20명, 2022년 9명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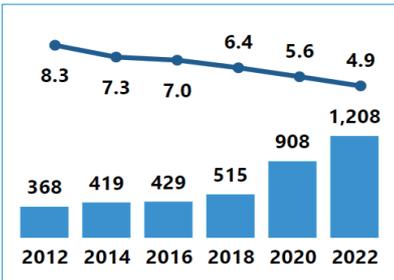
- 2012년 대비 2022년 보육아동 수(현원)가 증가한 곳은 국·공립과 직장 어린이집뿐임. 2012년 대비 2022년 국·공립 어린이집은 2,852명(93.6%) 증가하였으며, 직장 어린이집은 943명(57.5%) 증가하였음. 그러나 직장 어린이집은 2021년까지 보육아동 수(현원)가 증가하다가, 2021년(1,208명) 대비 2022년(1,107명) 101명 감소함.
- 2012년 대비 2022년 보육아동 수(현원)가 감소한 곳은 사회복지법인, 법인·단체 등, 가정, 민간 어린이집임. 2012년 대비 2022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4,816명(46.5%), 법인·단체 등 어린이집은 2,762명(48.4%), 가정 어린이집은 8,439명(65.4%), 민간 어린이집은 13,399명(47.5%) 감소하였음.

3 보육교사 수 ·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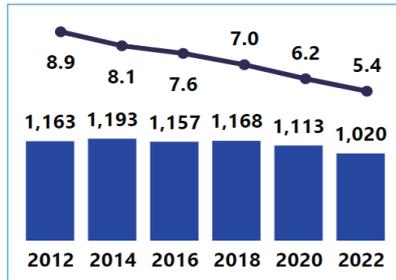


- 전라북도의 보육교사는 가장 많았던 2015년 8,871명에서 2022년 7,429명으로 1,442명(16.3%) 감소하였음.
-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2012년 7.3명에서 2022년 4.7명으로 2.6명 감소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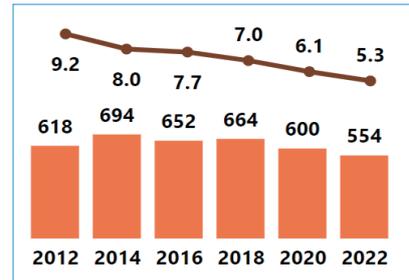
국·공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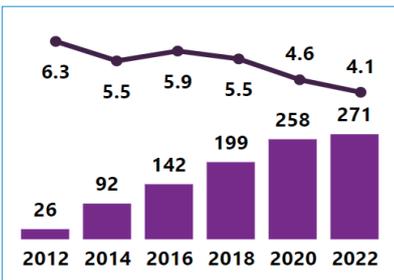
사회복지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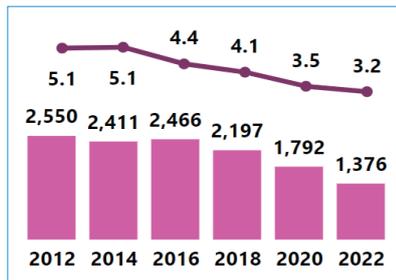
법인·단체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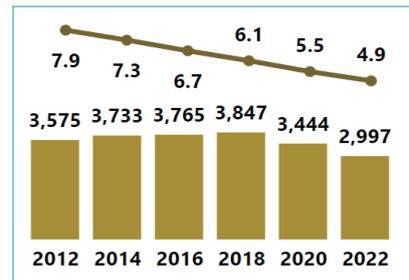
직장



가정



민간



※ 협동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2017년 2명, 2022년 3명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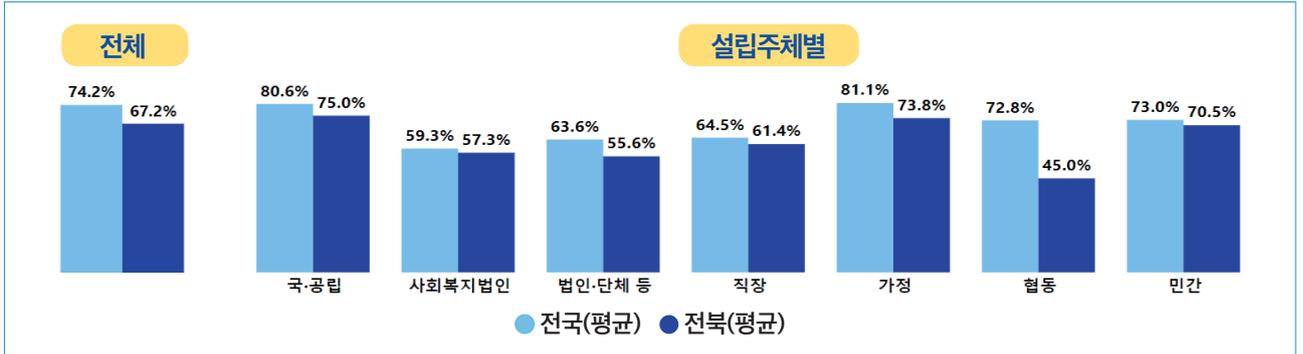
- 2012년 대비 2022년 보육교사 수가 증가한 곳은 국·공립과 직장 어린이집뿐임. 2012년 대비 2022년 국·공립 어린이집은 840명(228.3%) 증가하였으며, 직장 어린이집은 245명(942.3%) 증가하였음. 그러나 직장 어린이집은 2021년까지 보육교사 수가 증가하다가, 2021년(273명) 대비 2022년(271명) 2명 감소함.
- 2012년 대비 2022년 보육교사 수가 감소한 곳은 사회복지법인, 법인·단체 등, 가정, 민간 어린이집임. 2012년 대비 2022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43명(12.3%), 법인·단체 등 어린이집은 64명(10.4%), 가정 어린이집은 1,174명(46.0%), 민간 어린이집은 578명(16.2%) 감소하였음.

II

설립주체별 보육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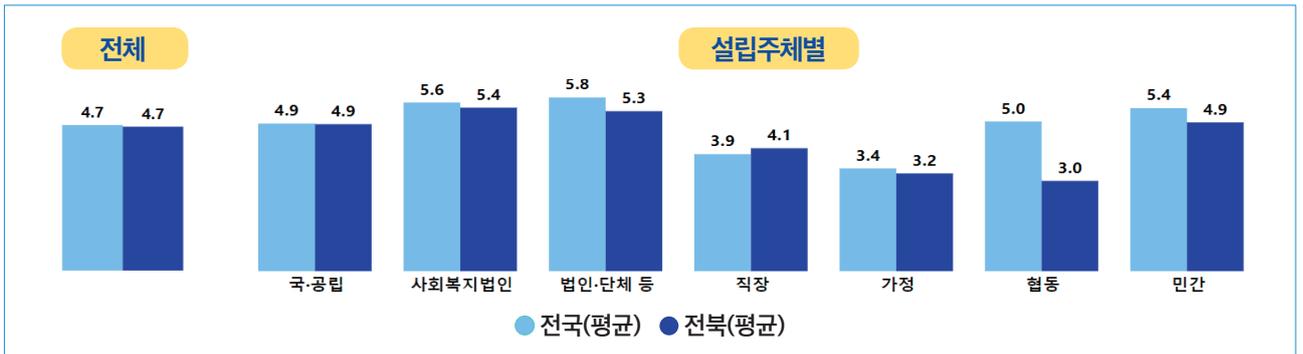
(2022.12.31. 기준, 단위: 명, % / 출처: 보육통계)

1 어린이집 이용률 비교



- 전국 전체 어린이집 이용률은 74.2%이고, 전북 전체 어린이집 이용률은 67.2%임.
- 전국에서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설립주체 중 가정 어린이집(81.1%)이 가장 높고,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(59.3%)이 가장 낮음.
- 전북에서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설립주체 중 국·공립 어린이집(75.0%)이 가장 높고, 협동 어린이집(45.0%)이 가장 낮음.

2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비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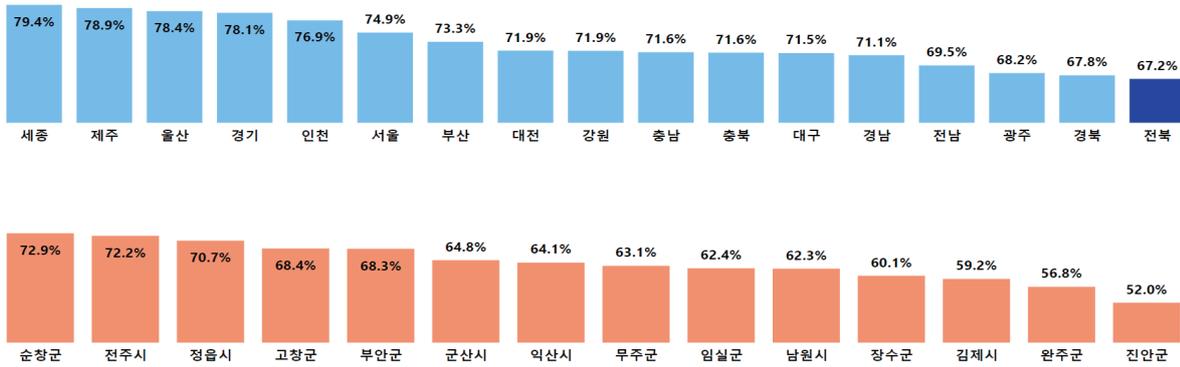
-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가 전국과 전북 모두 4.7명임.
- 국·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전국과 전북이 같고,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전북이 전국보다 높음.
- 전국에서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가 설립주체 중 법인·단체 등 어린이집(5.8명)이 가장 높고, 가정 어린이집(3.4명)이 가장 낮음.
- 전북에서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가 설립주체 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(5.4명)이 가장 높고, 협동 어린이집(3.0명)이 가장 낮음.

III

지역별 보육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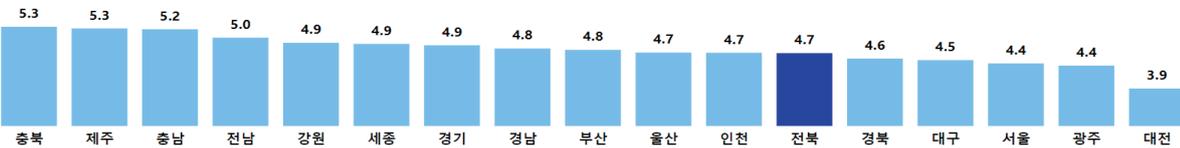
(2022.12.31. 기준, 단위: 명, % / 출처: 보육통계)

1 어린이집 이용률 비교 (전국 평균 : 74.2%)



- 17개 시·도 중 어린이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(79.4%)이고,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(67.2%)임.
- 전북 도내 14개 시·군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순창(72.9%)이고, 가장 낮은 지역은 진안(52.0%)임.

2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비교 (전국 평균 : 4.7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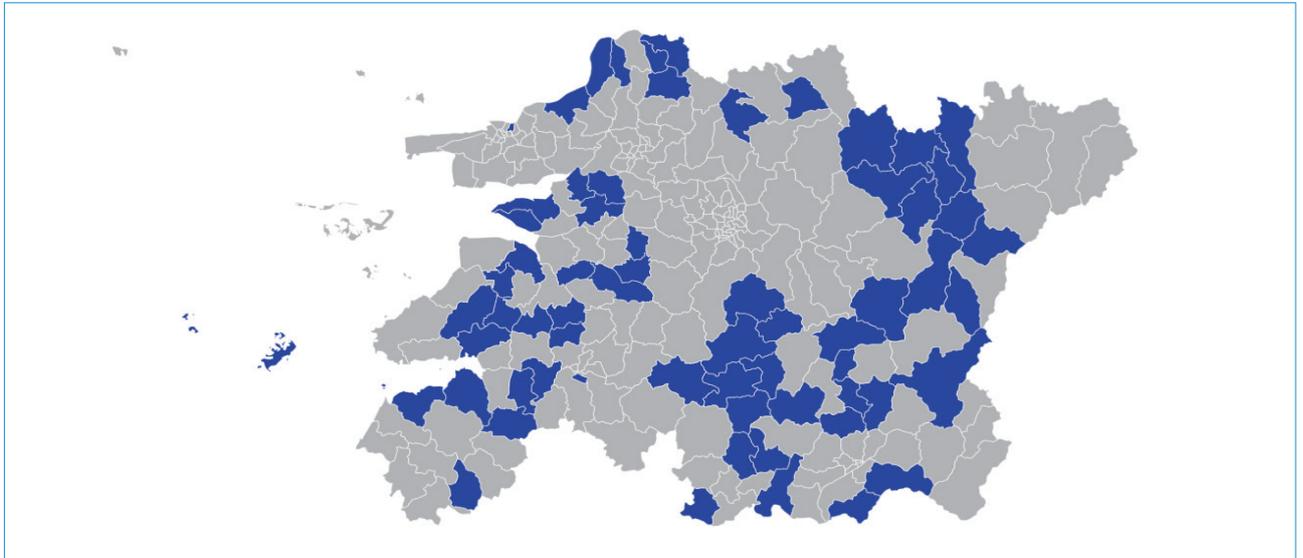
- 17개 시·도 중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(5.3명)이고, 가장 적은 지역은 대전(3.9명)임. 전북은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4.7명으로 12번째임.

참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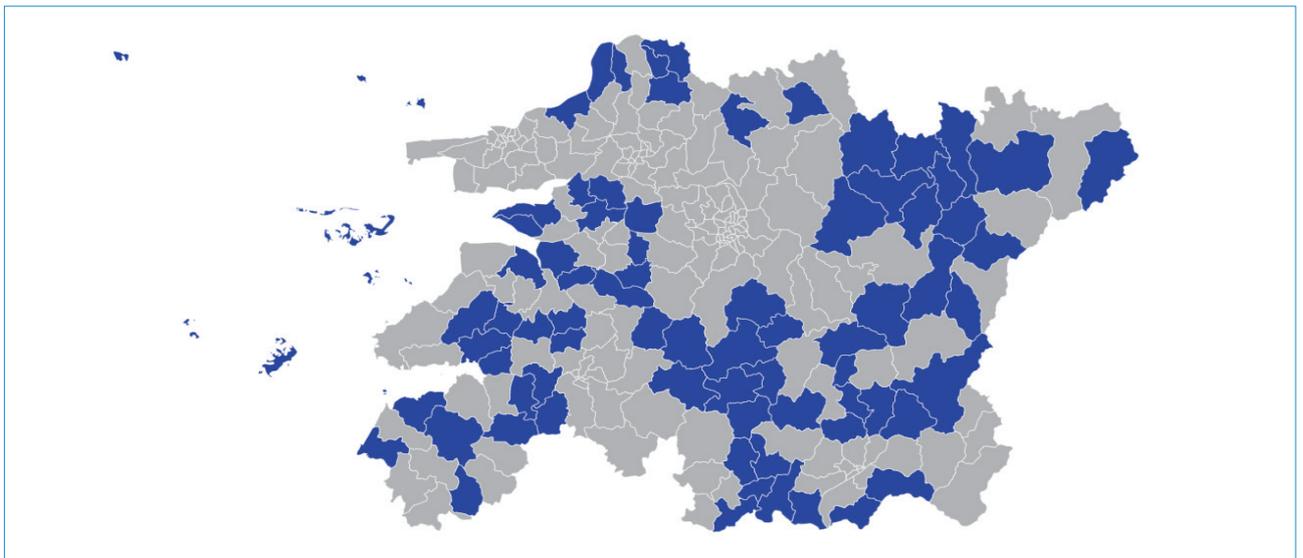
어린이집 미설치 지역(읍면동)

(매년 12.31. 기준 / 출처: 보육통계)

1 2012년 (65개 지역)



2 2022년 (76개 지역)



■ 출처

- 2012~2022년 보육통계(보건복지부)

■ <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>은 전라북도미래교육연구원 홈페이지 [교육정책연구-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]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

■ 보고서 바로가기